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언어 정책 현황

정희원(어문연구팀)·박정아(한국어교육진흥과)

1. 머리말

세계 여러 국가와의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여성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주장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이 강조되는 등 언어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 언어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언어 정책 기관을 방문하여 언어 정책을 파악하고, 국립국어원과의 교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정희원 어문연구팀장과 한국어교육진흥과 박정아 학예연구사가 200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언어문학원(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Malaysia)과 태국 왕립학술원(The Royal Institute of Thailand)을 차례로 방문하였

다.

두 나라는 다민족·다문화·다언어 국가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 소개된 적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 유학생,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이들과의 접촉이 다양해지고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글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언어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언어 상황에 시사하는 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언어 정책 추진 방향 및 언어 정책 기관의 위상

2.1. 언어 정책 추진 방향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나라의 언어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인구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절반 정도인 50.4%를 말레이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화교가 23.7%, 인도인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태국은 타이인이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교가 13%, 남부 말레이족이 3%, 북부 지방에 거주하는 기타 소수 민족이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의 주요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언어 정책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민족, 다문화라는 공통점을 갖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공식어의 올바른 사용과 교육을 진흥하는 정책과 소수 민족어의 보존 및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 국가 정체성 확립과 통합을 위해 말레이어를 공식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지배 역사와 소수 민족과의 조

화, 세계화 시대 경쟁력 확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영어가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어와 타밀어도 화교와 인도계 주민들의 민족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1972년 로마자로의 문자 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의 말레이어 표기 문자인 '자위 문자'를 종교 영역에서 사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태국은 북부의 소수 민족과 남부 지역의 분리를 주장하는 말레이족과의 화합을 위해 국가 공식어인 태국어의 교육과 보급을 강조하는 정책과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어를 보존하고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2. 언어 정책 기관의 역할 및 위상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언어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두 국가의 언어 정책 기관은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교육부 소속 기관인 '언어문학원'이 문학, 출판 분야와 연계하여 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다민족·다문화 국가로서 언어 정책이 사회 통합의 주요한 과제인 만큼 조직¹⁾이 매우 크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태국은 총리실 직속 기관인 '왕립학술원'에서 언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교사와 방송인 등 언어 관련 종사자는 물론 전 국민이 언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 기관의 기준을 따를 정도로 권위와 신뢰를 얻고 있다.

1) 말레이시아 언어문학원의 정규 직원은 총 850명이며, 이 중 언어 분과의 정규 직원은 92명이다.

3.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3.1. 언어 정책 동향

말레이시아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공식어는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말레이계의 언어인 말레이어이나 일상어와 고등 교육 과정의 교육 매개어로 영어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계 화교와 인도인 사이에서는 중국어와 타밀어가 교육 매개어와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중국계 말레이인은 중국어·말레이어·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어는 중국어이나 자신이 자주 쓰고 능숙한 일상어는 영어(망글리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복잡한 언어 양상으로 말미암아 말레이시아는 언어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언어문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과 기관에 관한 운영 등을 연방법 152조, 국가언어법(1960), 언어문학원법(1959, 1995), 말레이시아 교육법(1996) 등에 명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복잡한 언어 구성과 사용을 갖게 된 데에는 1786년부터 1957년까지 지속된 영국의 지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 정부는 교육·무역·외교 등에서 영어의 사용을 강화시켰고, 주석·고무 산업의 개발을 위해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를 이주시켜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을 다양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줄곧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가적 통합을 위해 공식어인 말레이어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켜 왔다. 그러나 오랜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형성된 영어의 사용 확대와 중국계·인도계 국민들의 민족어 고수는 말레이시아 언어 정책에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가 추진

한 언어 정책을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주요 사항	주요 언어 문제 및 언어 정책
1786~1957년	영국 지배 시대 (*1942~1945년: 일본 점령)	○ 공식적인 공용어는 없었으나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민족어로 교육하도록 하였으나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영어나 중국어가 교육 매개어였으며, 고등교육부터는 영어만 교육 매개어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이로 인해 모어에 상관없이 고등학문이나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은 영어에 능숙해야 했음. ○ 영국 식민지 정부가 고무와 주석 산업을 개발시키기 위해 이주시킨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과 언어 사용이 복잡해짐. ○ 이 시기부터 진행된 도시와 농촌 간 영어 격차와 중국어·인도 타밀어의 사용 확대는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의 주요한 언어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침입해 말레이시아를 잠시 점령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연합군과의 투쟁을 위해 말레이어 사용 우선 정책을 실시하였음.
*1956년	언어문학원 설립	○ 말레이시아의 독립 준비를 위해 독립 전 언어문학원이 설립됨. - 언어 문제가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통합에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줌.
1957년	독립 *말레이어를 공식어로 채택	○ 말레이어를 국가 공식어로 채택하고,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며, 정부 조직에서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헌법을 제정함. - 독립 이후 줄곧 말레이어 교육과 보급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까지 중국계와 말레이계 간, 도시와 농촌 간 영어 격차는 매우 컸음.

1960년	국가언어법 제정	○ 말레이어를 공식어로 명시함. *바하사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 언어)로 명명
1967년	공식적인 언어 정책 추진	○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독립 후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말레이어를 모든 공식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함.
1969년~	말레이어 진흥 정책과 함께 민족 간 조화를 위한 언어 정책 추진	○ 1969년: 영어를 교육 매개어로 하는 학교에 말레이어를 교육 매개어로 전환하는 정책 실시함. -비말레이계의 불만과 반발을 유발하여 민족 분쟁 유형 사태가 발생함. ○ 1969년: 민족 분쟁 유형 사태 이후 민족 간 조화를 위한 언어 정책을 추진함. ○ 1975년: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 매개어로 말레이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영어는 필수과목이 됨.
2003년	과학·수학 과목의 교육 매개어를 영어로 하는 정책 실시	○ 초, 중, 고등학교 국립학교에서 과학과 수학은 영어로 가르치기로 함. - 식민지 유산과 국제화의 필요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식민 지배 이후 대학에서는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전공 교수들이 영어를 더 편하게 구사함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여 의학이나 공학을 전공할 때 영어로 인한 장벽을 해소해 주기 위함.
현재	말레이어 진흥 및 소수 민족어 보호 정책 실시	○ 국립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말레이어로 가르치는 분위기가 일고 있음.

3.2. 주요 언어 문제 및 추진 정책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말레이시아의 역사에서 언어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번에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언어 문제는 무엇이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어 정책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언어 정책은 사회 통합과 유지를 위한 말레이어 진흥과 보급 정책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1 말레이시아’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어 정책도 그 일환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마침 필자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말레이시아 언어의 달’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거리 곳곳에서 관련 행사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진〉 말레이시아 주요 국가 기관 및 시내에서 볼 수 있는 ‘1 말레이시아’ 홍보물:
(차례대로) 언어문학원 1층 입구에 설치된 홍보물, 공공 기관 건물, 쿠알라룸푸르 쌍둥이 빌딩 앞 거리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어 진흥 정책과 함께 민족·종교의 다양성 인정을 통한 민족 갈등 방지 차원의 다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를 국가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상황과 민족, 종교에 따라 영어(망글리시), 중국어, 타밀어가 통용되

는 다언어 사회로 말레이어 교육 정책과 다언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언어 정책은 1969년 교실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민족 분쟁 유혈 사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어와 타밀어 등 민족어 교육을 허용하는 언어 교육 정책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계·타밀계 학교에 말레이어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말레이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언어 사용을 반영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함께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은 국민의 언어 사용과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은 민족과 교육 정도에 따라 자신이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가 다른데, 그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전공이나 직업이 제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문학·철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행정학 등 사회과학의 교수 언어는 주로 말레이어이며, 공학·예술·상경 계열의 학문은 주로 영어이나, 가끔 학생의 민족 분포나 교수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중국어가 교수 언어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에서 개인의 '구사 가능한 언어의 종류와 능력'은 말레이시아의 사회 계층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로 표지판〉



〈광고문〉

Coffee & Tea Ice Blended 白咖啡及奶茶沙冰		
151	OldTown White Coffee Ice Blended - Original 舊街場原味白咖啡沙冰	RM6.80
152	OldTown White Coffee Ice Blended - Hazelnut 舊街場榛果白咖啡沙冰	RM6.80
153	OldTown White Coffee Ice Blended - Mocha 舊街場摩卡白咖啡沙冰	RM6.80
161	OldTown White Milk Tea Ice Blended 舊街場白奶茶沙冰	RM6.80

〈쿠알라룸푸르 중앙시장 내 커피숍 메뉴판〉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는 이발소 창문〉

Masjid Al-Farooq 清真寺 Tempat Wuduk Potompuan/Utak 沐浴及擲擧處 Dewan Sembahyang Utama 主禮堂 Dewan Sembahyang Wanita 婦女禮堂 Dewan Syarahan Utama 主禮堂 Bilik VVIP VVIP Room Bilik Kuliah Lecture Room 1 - 3 Tempat Letak Kasut Shoe Rack	1 - 3
--	-------

〈쿠알라룸푸르 국립 무슬림 사원 내 안내 표지판〉

3.3. 언어 정책 추진 기관: 언어문학원 소개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언어문학원(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Malaysia)에서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과 함께 언어 정책 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10월 19일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위치한 언어문학원 본부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기관장인 언어문학원장(Dato' Haji Termuzi Bin Abd. Aziz)과 언어 분과를 총괄하는 언어부장(Rusli Bin Abd. Ghani)을 만나 기관의 개요와 당시 진행 중이던 '말레이시아 언어의 달'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뒤이어 언어부장, 4명의 팀장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언어 문제와 언어문학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레이시아의 언어 문제가 복잡하고, 언어 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언어 정책 기관인 '언어문학원'의 조직이 상당히 컸으며, 그 위상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문학원의 개요와 현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언어문학원 개요>

- 설립 연도: 1956년 교육부 산하 도서출판국으로 시작(*1957년 독립 이전에 설립)
 - 1959년: 국어발전과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적 기관인 '언어 도서관'으로 변경
 - 1962년: 말레이어의 국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 1969년: 정부에서 언어문학원에 언어 정책 기능을 이관하면서 '말레이어 정책' 강화
 - 1977년: 동부 말레이시아에 2개 지사 설립, 사업 영역 확대
 - 1999년: 인근 국가(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태국 등)에 말레이어 · 문학 보급을 위하여 2개 지방사무소 개설
 - 2000년: 남부 지역에 지방사무소 개설

- 목표
 - 과학과 기술을 포함한 모든 지식 분야에서 국가 공식어로서의 말레이어를 발전시킴
 - 문학과 문해 능력을 고양시키고 향상시킴
 - 공식어 및 다른 언어로 책, 잡지 등을 출판함
 - 철자와 발음을 표준화하고, 전문용어를 정비함
 - 국가 공식어의 올바른 사용을 증진하고 장려함
 - 말레이시아 일반법에 규정된 영역에서의 국가 공식어 사용을 진흥시킴
- 근거 법령: 연방법 제152조, 국가 언어법(1960), 말레이시아 교육법(1996)
- 직원: 정규직 총 850명, 언어 분과 정규직 92명(*비정규직 50명)
- 조직: 언어 분과, 문학 분과, 출판 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
 - 언어분과: 총 6개 부서로 구성(*언어조사, 사전편찬, 전문용어 정비, 말레이어 진흥, 말레이어 보급, 언어 정책)
- '09년 예산: 언어 분과 예산 3,500,000 링깃(*언어문학원 예산 120,000,000 링깃)

〈언어문학원의 부서별 추진 사업〉

○ 언어조사부(Language Research): 말레이어 말뭉치 구축을 위하여 문법, 담화, 사회언어학 및 말레이시아 언어 역사에 대해 연구하며, 모든 연구 종료 후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결과를 발표함.

○ 사전편찬부(Lexicography): 단일어 사전과 다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말레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임.

▶ 언어문학원에서 개발한 사전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사설 출판사에서 발간한 사전이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본 원의 사전을 수용함.

○ 전문용어 정비부(Terminology): 다양한 지식 분야의 전문용어 정비, 국내 및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규정화와 기술어 사전 편찬 등을 추진함.

○ 말레이어 진흥부(Malay Language Expansion): 국어 사용 진흥, 국어의 올바른 사용 권장과 국어 사용자 대상 언어 지도 및 상담을 추진

함.

▶ 국립국어원의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 전화)’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말레이어 보급부(Malay Language Expansion for Various Races): 소수 민족 대상 말레이어 사용을 진흥시키고, 소수 민족 대상 말레이어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함.

○ 언어정책부(Language Policy):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설명을 제공하고(말레이 언어 위원회), 언어 조사를 위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외국어로서의 말레이어 교육을 진흥시킴.

▶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및 중국과 교류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언어문학원 입구〉



〈언어문학원 1층 서점〉

4. 태국의 언어 정책

4.1. 언어 정책 동향

태국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인과 문화와 민족, 종교를 달리 하는 여러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다문화 국가이다. 태국의 소수 민족은 화교(13%)와 남부 말레이인(3%) 그리고 70여 종족에 달하는 북부 고산족(3%)으로 구성된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 민족이 태국인으로 동화·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각 소수 민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태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수 민족인 화교는 경제와 무역 분야는 물론 정부의 고위 관직에도 진출하는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태국 문화와 사회에 잘 동화되어 정착하였다. 그러나 남부 말레이인과 북부 고산족은 타이인과의 종교·언어·문화의 차이가 커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남부 말레이인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말레이 언어 사용을 주장해 왔으며,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고산족은 민족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태국 언어 정책에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태국의 언어 정책은 소수 민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추진되어 왔다.

4.2. 주요 언어 문제 및 추진 정책

태국에서의 언어 정책은 태국어 교육과 진흥, 소수어 보존 및 언어의 다양성 인정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인과는 매우 다른 언어·문화·종교를 가진 남부 말레이인과 북부 고산족에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현재 태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언어 문제는 무엇이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어 정책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태국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언어 정책은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태국어 교육과 진흥 정책이다. 특히 태국 정부는 남부 지역의 무슬림과 70여 개 민족어를 사용하는 북부 고산족들의 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왕립학술원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언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추진하는 태국어 교육과 진흥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태국어 교사 양성하여 남부 지역 등 언어 문제가 있는 곳에 파견
 -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태국어 교육 사업 추진
 - 방송국과 연계하여 연예인, 언론인 대상 태국어 교육 실시
 - ‘태국어의 날’(7월 29일)을 제정하여 10년 전부터 다양한 행사 개최
- 태국어 교육 및 진흥 정책과 함께 태국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언어 정책은 다민족 간 공존을 위한 언어의 다양성 및 소수언어 보호 정책이다. 특히 말레이어의 교육과 사용을 주장하는 남부 지역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 지역 어린이

들의 태국어 실력이 저하되어 학업 능력 부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태국어 교사를 파견하여 태국어 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소수 민족어 보존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기록하여 언어 자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 경제 발전, 국제 교류를 위한 주요 외국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태국과 경제·정치적으로 교류가 많은 국가의 언어 표기법 제정하고, 통역·번역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순이라고 하는데, 방문 당시 왕립학술원에서는 한국어의 태국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태국 정부는 이주민, 장애인 등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국도 주변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태국어 교육 정책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태국은 불교 국가이자 오래 전부터 왕실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해 온 터라 수화 사전 개발 등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3. 언어 정책 추진 기관: 왕립학술원 소개

태국의 언어 정책은 총리실 직속 기관인 왕립학술원(The Royal Institute of Thailand)의 예술아카데미 분과에서 추진되고 있다. 태국의 언어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10월 21일 방콕 시내의 왕궁 안에 위치한 태국 왕립학술원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왕립학술원장과 언어 분과 책임자(Udom Warrotamsikkkhad)를 만나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으며, 이어 언어 분과 책임자(Udom Warrotamsikkkhad)와 언어분과 담당자(Cholthicha Sudmuk), 예술 아카

데미 협력 이사 Nitaya Kanchanawan) 등과 함께 태국의 언어 문제와 주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까지 국내에 태국의 언어 정책과 관련 기관이 소개된 적이 없었으며,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가 주요한 외국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터라 이번 방문은 태국의 언어 문제와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두 기관의 교류 가능성도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였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잘 전승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큰 나라이다. 그러나 남부 지역 말레이인²⁾과의 갈등과 북부 고산족의 낙후된 경제·교육 수준은 태국어의 교육과 보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의 이러한 언어 상황은 왕실의 권위와 국가 기관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국인의 의식과 맞물려 왕립학술원에서 추진하는 언어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왕립학술원의 개요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태국 왕립학술원 개요>

- 소속: 총리실 직속 기관
- 설립연도: 1932년
- 근거법령: 왕립학술원법(1933, 2001)
- 조직: 학술원 원장 아래 이사회,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구성
 - 이사회 구성: 협력이사(83명), 이사(86명), 명예이사(8명)로 구성
 - 아카데미 구성: 윤리·정치 아카데미, 과학 아카데미, 예술 아카데미로 구성
 - * 예술 아카데미에서 언어 정책을 추진
 - * 현재 언어 분과 책임자가 예술 아카데미 대표를 담당하고 있음.

2) 김영애(1993)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태국 남부 지역의 말레이인들을 타이무슬림으로 부른다고 한다.

- ▶ 아카데미 아래 사업별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주요 사업: 현재 언어 분과는 7개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왕립학술원 언어 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 내국인 대상 태국어 교육·진흥 정책 추진
 - 성인 대상 태국어 전자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성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남부 지역 주민들의 태국어 능력 저하 문제로 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태국어 실력 검증 제도 개발
 - ▶ 남부지역의 교사·학생 대상으로 시범 평가 실시 → 태국 전역 일반인 대상 시행→외국인 대상 실시 계획
 - 방송언어 향상 및 방송을 통한 태국어 교육 실시
 - ▶ 방송국과 연계하여 연예인, 언론인 대상 태국어 교육 실시
 - ▶ 바른 태국어를 사용하는 방송인 선발·시상
 - ▶ 어린이를 위한 태국어 교육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 ▶ 라디오 3개 채널을 통해 '태국어 알고 사랑하기' 방송 내용 지원 (매일 1분 분량)
- 소수언어 보호 정책 추진
 - 소멸되어 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는 사업 추진, 남부 지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 지원
 - 이주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대상 태국어 사용 관련 정책 추진
 - ▶ '08년 유네스코 지원으로 '민족 통합을 위한 언어 다양성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주요 교류국의 언어 표기법 제정(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 ▶ 2009년 10월 당시 한국어의 태국어 표기법 제정 중
- 외국어로서의 태국어 교육 진흥 정책 추진

-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와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태국어 교재 개발
- 장애인 등 소외 계층 언어 진흥 정책 추진
- 태국어 정보 처리 및 통역·번역 관련 사업 추진

5. 맺음말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언어 정책 현황과 언어 정책 추진 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언어 정책은 그 나라의 인구 구성과 문화, 종교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언어 정책이 국민의 언어 사용을 바꾸기도 하고, 국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해외 노동자,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와 교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언어 정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언어 상황과 언어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립국어원이 국외 언어 정책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내실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첫째, 국가의 언어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기관과의 국제 교류 활성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방문 기관인 말레이시아 언어문화원과 태국 왕립학술원을 비롯하여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해당국의 연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세계 대표 언어 정책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 등의 참여로 국가 간 언어 정책 추진 현황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 간 자료 공유에서 나아가 언어 정책 관련 사업 결과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록 사업 결과물을 번역하여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출장지처럼 언어 정책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가의 언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올해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제 언어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관 간 정책·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데에서 나아가 유사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언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어 능력 조사, 언어 의식 조사,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모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기획·추진하거나 영어의 침투나 소수어의 보존 나아가 소수 민족의 언어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서 다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언어 문제와 정책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연진(2006), ‘언어정책과 국가경쟁력 비교: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8-1, 새한영어영문학회.
- 김영애(1993), ‘태국내 소수종족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4,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이병민(2008), ‘다른 나라의 영어 교육 사례가 주는 교훈’, “새국어생활” 18-2, 국립국어원.
- 박영순(1997), “이중·다중언어 교육론”, 한신문화사.
- 박영준 외(2004), “영어 공용화 국가의 말과 삶”, 한국문화사.
- 송경숙(2006),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및 영어 특징’, “영어학” 6-4, 한국영어학회.
- 전태현(2009),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책’, “외국어교육연구” 23-1, 한국외

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관련 누리집

말레이시아 언어문학원 누리집 <http://prpm.dbp.gov.my/>

태국 왕립학술원 누리집 http://www.royin.go.th/en/home/index.php?System__Session__Language=Eng